2025년 7월 20일

ב׳ת־ספרים (책의 집)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한동일 씀, 인터N

지혜의 시작은 가르침을 받으려는 진실한 소망이다.
(지혜서 6.17)

달란트 비유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어리석음에 의해서도
빈곤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빈곤은
사회적, 구조적인 이유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즉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사고에 대한 경각(警覺)입니다.
그래서 빈곤과 가난의 반대는 풍요와 부유함이 아니라,
지혜라고 성경은 역설합니다.

인간은 지혜에 의해 충만해질 수 있으며,
그것을 얻는 첫걸음은
지혜를 배우려는 진실한 갈망입니다.
지혜가 쌓이는 절대적 시간이나
조건이라는 것은 없겠지만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는 데서,
조급해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태도에서
지혜는 자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51권 29호 2025년 7월 20일(성령강림절 후 여섯 번째 주일)

제109회 총회주제 :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겔 37.14, 행 9.31)

안산교회는 1974년 4월 여천군 월내리에서 설립 후 안산동으로 이주하였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여수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앞선 세대를 섬기는 공동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영성과 지성의 조화를 꿈꾸는 공동체,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힘쓰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남 여수시 안산1길 172-10 59662
교회 (061) 691-7315 Fax (061) 691-7320 목양실 (070) 4292-8377

† 안산가족 소식

**은혜와 평화의 동산 안산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며,
우리교회의 예배를 소개합니다.**

- **주일 낮 예배:**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표'를 읽으며 예배드린 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실천합니다.
- **찬양예배:** 매월 첫 주일 오후에 모입니다.
- **수요기도회:** 매일성경 '그룹 큐티 나눔'을 교재로 활용합니다.
- **새벽기도회:** 매일성경 성서읽기표를 활용하여 주 4회(화-금) 모입니다.
- **일상기도:** 다락방과 중보기도 제목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기도합니다.

1. **예배** ① 주일예배: 오늘은 성령강림절 후 여섯 번째 주일입니다.
   (공동기도문과 지난 주일 설교 요약문은 사무실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 **섬김주일 안내:** 낮 예배 후 남녀선교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3.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26일(토)-27일(주일), 교회
4. **성경 필사:** 요한복음에 이어 '창세기' (메시지성서)를 시작합니다.
5. **여름휴가 기간 신앙 실천:** '인생 말씀' 찾기에 도전해보세요.
6. **중보기도 제목**
   - 코로나19 극복과 교훈(공존, 공생)을 잊지 않기를
   -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및 한반도의 평화와 빈부격차, 이념 및 세대 갈등 해결을 위하여
   - 한국교회의 회복과 사명 감당을 위해
   - 동역자들(방글라데시, 필리핀, 동백사랑교회, 여은교회)을 위하여
   - 노년의 평화와 고난 당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 신앙실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살고 싶고 따르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나요?
그 구절은 무엇인가요?

† 예배 및 자치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선교회	연 령
주일낮예배	오전 11시	본 당	아브라함	남 성 교 우
수요기도회	오 후 7 시	소예배실	에 스 더	61-70세 여성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소예배실	드 보 라	51-60세 여성
아동부예배	오 전 9 시	소예배실	마 리 아	41-50세 여성
청소년부예배	오 전 9 시	청소년부실	한 나	40세까지 여성
YouTube 채널: 여수안산교회 ㅣ 온라인 헌금계좌: 신협 061-691-7315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평화의 동산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산교회

주 일 예 배 (성령강림절 후 여섯 번째 주일)

주일 오전 11시 — **인도 : 송 혁 목사**

경배와 찬양		함 께
* 입 례 송	주 찬양	함 께
* 예배의 부름	시편 66.1-4	인 도 자
* 송영과 기원		반주, 인도자
* 영 광 송	15장(3절 후, 간주)	함 께
함께 드리는 기도		함 께
참회의 침묵기도		함 께
위로와 용서의 말씀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함 께
성 시 교 독	시편 15편(성서일과표를 보며)	함 께
감 사 찬 송	453장(3절 후, 간주)	함 께
기 도		김영준 장로
* 성 경 봉 독	누가복음 10.41-42(신약 110쪽)	인 도 자
찬 양	빈 들에 마른 풀같이	영 상
말 씀 선 포	마리아의 지혜로운 선택	송 혁 목사
결단의 찬송과 기도	80장(3절 후, 간주)	함 께
봉 헌		함 께
성도의 교제		함 께
* 교제의 찬양	382장(4절)	함 께
* 축 도		송 혁 목사

* 표는 일어서서 합니다. (헌금은 예배 전,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다음 주 기도 - 이기도 목사

* **7월 안내위원 :** 배순희, 배유희, 김수영, 서영숙
* **7월 헌금위원 :** 이상철
* **7월 주방봉사 :** 2, 5구역

생명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너무 많은 일로 노심초사 호들갑을 떠는구나.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제일 좋은 부분을 선택했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 10.41-42/하나님 나라 신약성경)

섬 김 주 일

낮 예배 후

남녀선교회 월례회 ..... 정 한 장 소

수 요 기 도 회

오후 7시 — **인도 : 이기도 목사**

찬 양		함 께
기 도		김양자 권사
성 경 봉 독	요한계시록 13.1-10(신약 411쪽)	인 도 자
말씀선포와 기도	묵시로 보는 세상	이기도 목사
축 도		이기도 목사

다음 주 기도 - 서영숙 집사

일 상 기 도 (매일성경)

날짜(요일)	묵상 본문	24일(목)	요한계시록 16.1-11
21일(월)	요한계시록 14.1-13	25일(금)	요한계시록 16.12-21
22일(화)	요한계시록 14.14-20	26일(토)	요한계시록 17.1-18
23일(수)	요한계시록 15.1-8	27일(주일)	요한계시록 18.1-8

*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여수지역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

지 난 주 일 말 씀

주 안에 생명 있네

(신명기 30.9-14)

[성서일과표/신명기 30.9-14, 시편 25.1-10, 골로새서 1.1-14, 누가복음 10.25-37]

모세 5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의 히브리말 제목은 '말씀들' 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서 전한 세 편의 고별 설교를 담고 있지요. 신명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에서 성서 기자가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구원과 생명이 있기 때문이지요. 신명기는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이 맺은 조약문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주군이 그를 섬기는 봉신에게 부과하는 충성 서약이지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여러 신을 섬겼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의 주인인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고 명령한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느님은 야훼 한 분뿐이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조약문서의 내용 그대로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의 핵심은,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신명기 기자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가 오늘 명령하는 이 계명은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입 속 혀처럼 가까이, 가슴 속 심장처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행하십시오!"**

신명기의 가르침은 이른바 규범적 지혜 혹은 전통적 지혜에 기초합니다. 잠언에서 요구하는 지혜와 뿌리가 같지요. 지혜 여인의 외침을 들어볼까요?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자리를 잡고 서 있다. 마을 어귀 성문 곁에서, 여러 출입문에서 외친다."** 듣고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가르침은 항상 곁에 있다는 뜻이지요. 모른다고,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를 떠보려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는 예수의 반문에 그는 주저 없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대로 살라고 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앎이 아니니까요. 그러자 율법 교사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처럼 율법을 잘 알고 글자 그대로 지키는 유대인이 이웃이라는 답을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바로 이웃이라는 대답을 끌어냅니다. 주님은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요.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신명기나 잠언이 가르치는 규범적 지혜의 핵심은 한마디로 '뿌린 대로 거둔다' 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을 읽어볼까요? **"나무를 좋게 만들면, 그 열매도 좋다. 혹은 나무를 썩게 놔두면, 그 열매도 썩는다. 그러므로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 농부는 어떻게 나무를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좋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인들의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적재적소의, 겸손한, 행기를 내는, 타인에게 미소를 짓게 만드는'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닙니다. 농부가 겨울을 인내한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며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내어줍니다. 반대로 좋지 않다는 말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쁜 행실이 아닌 '방치하여 썩게 된 상태' 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도 나무에 비유할 수 있겠지요. 오늘 내가 하는 생각과 말 그리고 행위가 곧 삶의 결과이며 열매랍니다.

신명기나 잠언의 규범적 지혜가 요구하는 가르침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나 자신이 제한자인 동시에 신의 성품을 가진 자라는 고백을 예배 중심의 삶으로 살아내고, 일상에서는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지나치게 몰입하느라 잘 듣지 못합니다.

한동일 전 신부님은 이렇게 권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위대했던 점은 영웅적인 이야기에 있지 않고 바로 성경의 한 줄을 몸으로 살아내고자 했던 단순하고 곧은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살고 싶고 따르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나요? 그 구절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물론 성서의 지혜는 규범적 지혜가 전부가 아닙니다. 욥기와 전도서는 규범적 지혜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성적 지혜를 가르칩니다. 반성적 지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고 그것이 창조의 질서이지만, 동시에 그 질서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고백이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에 고난 대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영적 근육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규범적 지혜에만 집중했지만, 우리의 삶과 신앙은 이렇게 두 가지 지혜를 통해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생명 충만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안에 생명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샬롬.